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일부 구조조정 기업 매각 연기
- 강남 아파트 가격의 '선거 랠리' 조짐

## 경영 노트

- 핵심인재 전쟁(War for Talent)

## 정치 트렌드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성과와 전망

## 저널 브리프

- 위안화 급상승과 전망

## 洗心錄

- 설득의 어려움

## □ 일부 구조조정 완료 기업 매각 연기

- 정부는 그동안 매각이 거론되던 구조조정 기업들 중 대우조선, 현대건설, LG카드, 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에 대해서 매각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자본 규모가 거대한 기업들을 동시에 M&A 시장에 공급할 경우, 적정 가격 이하에서 매각될 우려가 높고, 국내 자본 시장 취약으로 국내 은행 산업의 경우처럼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갈 우려가 높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정부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채권단들인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은 관리 기업들의 매각 시기 연기, 경영권을 제외한 지분의 분할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

## □ 강남 아파트 가격의 '선거 켈리' 조짐

- 「8·31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동시 지방 선거 2007년 대선 등으로 건축 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 완화 기대 심리가 확산되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냄
  - 1995년 이후 '98년을 제외한 총 7번의 전국 선거에서, 선거전 6개월 동안의 강남 아파트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평균 약 4%의 상승률을 기록함
  - 최근에도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고도제한 폐지,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우회적 건축 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주택 매도 시 막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강남 지역의 경우 아파트 매도 가격에 그러한 세금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음
-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권의 규제 완화 공약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 □ 핵심인재 전쟁 (War for Talents)

### ■ 소수 핵심인재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소수 핵심 정예부대의 전력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 질적, 양적으로 좀 더 우월한 핵심인재 집단을 구성,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를 필두로 하여 조직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골드만삭스의 회장인 헨리 폴슨은 ‘어떠한 업계에 있든지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자사와 경쟁하는 기업이 경쟁자’라고 정의함

### ■ ‘브레인 엑소더스(Brain Exodus)’를 막아라

- 실리콘밸리의 ‘인재 블랙홀’이라 불리는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카이 푸 리 前부사장을 비롯하여 실리콘밸리의 전문 인재들을 무서운 속도로 유치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패션, 유통업체인 이랜드와 업종이 전혀 다른 ING보험사 간에 인재 스카우트전이 벌어짐
  - 이들 업체는 자사의 핵심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음
- 삼성전자는 국내외 핵심인력 관리를 전담하는 ‘글로벌 헬프 데스크’를 구성, 입사 전부터 개인의 생활편의 지원까지 핵심 인력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핵심인재 전쟁의 사령관은 CEO

- GE의 잭 웰치 前회장은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CEO가 직접 뛰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연간 업무시간의 70%를 인재관리에 할애하였음
-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도 핵심인재 관리를 위해 CEO 등 임원들이 직접 핵심인재들의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추세임
- 삼성그룹 계열사의 CEO들은 핵심인재의 발탁과 유지, 관리에 자신들이 공헌한 부분을 연말에 평가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인사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고 있음

□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성과와 전망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현장 방문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치·경제 부문의 북중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개혁·개방 추진에 대한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 및 △중국의 대북 투자 및 북한 지하자원 개발 방안 등의 경제적 현안과 △북핵 문제 및 △위조지폐로 인한 대북 금융제재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 등의 정치적 현안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방중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압박 속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정상회담은 경제 현안보다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등 정치 현안 해결에 더 큰 비중을 둔 ‘외경내정’(外經內政)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됨
- (시사점과 전망) 북한의 개혁·개방 및 남북 경협 확대와 함께, 北中間 상호 실리와 명분 교환을 통해 6자회담 재개와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의견 조율이 기대되나, 북한 개발의 韓中間 ‘지역 분할 구도’가 예상됨
  - (개혁·개방) 방중 행로가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 남부 개방도시를 돌며 개혁·개방을 역설)에 비유되는 만큼, 내부 개혁보다는 개방을 통한 외부 지원 확대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둔 새로운 특구 개방 가능성이 존재
  - (남북 경협) 경색된 북미 관계나 금융제재 속에서 외화 부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 지원이 절실한 만큼,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 확대가 기대되며, 신년사에서 남북공조를 강조한 점으로 보아 북측의 다양한 협력과 요구가 예상됨
    - 그러나, 북중 경협 확대로 북한은 개성과 금강산 개발은 남측이, 신의주 및 신규 개발 특구 등은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 분할 구도’가 발생할 수도 있어, 남북 경협 범위가 위축될 우려가 존재
  - (북핵 문제) 북중 혈맹 관계의 재확인과 중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기대됨. 예컨대, 북한이 위조지폐를 개별 기업이나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미국은 이를 수용함으로써 중국은 외교적 위상 제고의 명분을 얻음
    - 다만, 북미간 근본적인 불신으로 단기간 내 해결되기보다는 대화 틀은 유지되면서도 ‘긴장 속의 조정’ 양상이 지속되는 교착화 가능성이 높음

□ 위안화 급상승과 전망\*

■ (위안화 급상승) 최근 중국 외환거래제도가 변함에 따라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음

- (위안화 변동성 증가) 2006년 1월 4일 달러당 8.0702위안으로 거래가 시작된 위안화가 다음날 한때 달러당 8.0646위안까지 상승, 2005년 12월 위안화 가치가 하루 평균 0.001위안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변동폭 또한 높아졌음

- (원인) 위안화의 변동성 증가 원인은 글로벌 달러의 약세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2006년부터 외환시장 ‘마켓메이커(시장 조정자)제도’ 도입을 통해 13개 국내외 은행을 시장 조정자로 지정하는 등의 외환거래제도를 변경시켰기 때문임

· 13개 시장 조정자 지정: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건설, 공상 등 4대 국유 은행을 포함해 교통, 중신실업, 자오상, 싱예 등 8개 국내 은행과 HSBC, 시티뱅크, 스탠더드차타드, ABN암로, 뱅크오브몬트리올 등 5개 외국계 은행을 시장 조정자로 지정함

· 시장 조정자의 기능: 시장 조정자로 승인된 은행들은 외환시장에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화 유동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함

· 외환거래제도 변화 주요 내용: 위안화 환율의 기준 환율 산정 방식을 주식 시가 결정시스템과 동일하게 했으며, 은행 등 금융회사뿐 아니라 기업들도 일정 자격을 갖추는 경우 외환시장에 참가해 외환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향후 위안화 전망) 외환거래제도 변경으로 위안화 환율 결정에 시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위안화의 변동 또한 심해질 것임

- (영향) 최근 중국 기업 가운데 중화집단이 처음으로 외환시장 참가 자격을 부여 받는 등 기업의 외환시장 참여가 가속될 것이며, 위안화 환율 결정에 시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임

- (위안화 환율 전망) 상하이 외환시장 주변에서는 2006년 위안화 가치가 3~5% 가량 상승, 달러당 7.6위안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2005.01.23)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 설득의 어려움

춘추전국시대에는 왕이나 유력자들 밑에 지략가들이 모여 세상을 얻는 전략을 궁리하였다. 이들 지략가들은 유력자의 집에 머물면서 침식을 제공 받는다는 뜻의 식객(食客), 또는 유력자에게 자기 주장을 조언하는 의미의 유세객(遊說客)이라고도 불렸지만, 그들의 책략이 받아들여지면 단번에 높은 벼슬로 직행하는 행운을 누렸다. 따라서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이었다.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세난(說難)>(말하는 것의 어려움)이란 글도 이런 시대적 상황이 배경을 이룬다. 세난을 쓴 한비자(韓非子:BC 280?~BC 233) 자신이 선천적인 말더듬이로서 유세를 잘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옛날 미자하(彌子瑕)라는 미소년이 있었는데 위나라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위의 법은 군주의 수레를 몰래 타는 자에게는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내리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미자하는 바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왕의 수레를 타고 집으로 향하였다. 왕은 말하길, “효자로구나, 어머니의 병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발꿈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니!”

또 어느 때인가 미자하는 임금과 함께 과수원에 행차하게 되었는데 복숭아가 너무 맛있는 나머지 자신이 한입 베어 먹은 복숭아를 왕에게 올렸다. 이에 왕은 “얼마나 왕을 생각하는 정이 깊은가. 제가 먹던 것이라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을 정도로 나만을 생각하는구나!”

세월이 흘러 미자하도 늙었고 임금의 사랑도 식게 되었다. 그때 미자하가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 임금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왕은 말하길, “미자하는 일찍이 나 몰래 수레를 훔쳐 탔으며,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주던 쾌심한 놈이다!”

미자하의 행동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었지만, 예전에는 칭찬을 받고 나중에는 벌을 받게 된 것은 왕의 마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가 그 원인이다. 누군가를 설득하길 원한다면,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다.

“모든 리더십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달함으로써 수행된다.”

- 찰스 쿨리(1864-1929) : 미국의 사회학자